

불량 레미콘 판매 업체 회장 중형 선고

순천지원, 수백억원대 부당이득 회장에 징역 4년 선고 합량 15% 줄인 레미콘 2500여곳 유통 306억 원 부당이득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레미콘을 공사 현장에 납품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지역의 한 레미콘 업체 회장에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4개 레미콘 업체 회장 장모(7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배합비율 조자 프로그램 개발자 민모(43)씨와 규격미달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임원 정모(48)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불량 레미콘을 공사 현장에 납품한 품질관리 담당 직원

등 5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명했다.

불량 레미콘을 생산한 4개 업체는 각각 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멘트의 배합비율을 속여 불량레미콘을 공사현장에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수년에 걸쳐 납품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불량 레미콘은 건축물의 안전도와 직결되므로 시멘트의 함량을 속인 것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량 레미콘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조사결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았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위치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순천·보성·장흥지역 4개 레미콘 업체에서 건설사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15%가량 줄여 배합하는 방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판매해 총 30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4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관급 공사장 3곳에 레미콘 납품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실제 납품량보다 적게 납품하는 수법으로 8억1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공사의 요구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와 배합 설계표를 조작해 150여 곳

의 건설사를 속여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 검사 통과용 레미콘을 따로 제조하거나 시멘트 함량을 적게 배합한 레미콘의 비율을 조작해 규격표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품질 시험(압축강도·타실 시 유동성·열도·공기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으며,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 뒤 배합 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불량 레미콘은 전남지역 아파트 8곳을 비롯해 총 2500여 곳의 건설현장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발주한 하천 정비·도로 보수·마을 회관 공사뿐 아니라 주택·축사·원룸·상가 공사에도 불량레미콘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김승호 기자

목포서 차고지 주차된 시내버스 화재

19일 오전 0시14분께 목포시 산성동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주차돼 있던 45인승 버스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1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버스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차고지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70대 독거노인 숨진 지 2개월여만에 발견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독거노인이 자택에서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됐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 서구 동성동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김모(78·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서구청 사회복지사 공무원과 119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담당 공무원은 경찰에 “연락이 닿지 않아 119에 신고한 뒤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보니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31일 김씨가 힘이 없고 몸을 가누지 못해 한방병원에 데려가 영양제를 맞춘 뒤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시신의 부패 상태로 미뤄 김씨가 숨진 지 2~3개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김씨는 다른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혼자 외롭게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청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최근 인사로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김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에이즈 감염 20대 여성, 10~20명과 성매매

부산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A씨(26·여)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8만원을 받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 에이즈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랴 모텔에서 동거 중이던 A씨와 B(27)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0~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고, 경찰에 단속된 이후 성매매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검거된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교사하고 알선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보강수사한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성매매를 한 남성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이후 남성과 나눈 채팅 앱 대화 내용을 삭제했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원하고 있다.

대학 후배 성폭행한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현직 경찰관이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둔산경찰서 소속 A씨가 이남 세벽 대전 자신의 집에서 대학교 후배인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을 앞둔 A씨는 이날 대학 선�후배들과 축하 모임에 참석한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경찰과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찰서민센터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치매 환자 폭행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기소

광주지검은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와 또 다른 환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환자 B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와 함께 또 다른 환자 C씨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병동 출입시스템 번호기를 누르는 B 씨의 행동을 만류하다 B 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 씨 사건 수사 과정에 병원 환자 등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A 씨의 C 씨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또 B 씨 폭행 사건과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이 요양병원 직원 D 씨를 구속 기소했다. D 씨는 A 씨의 B 씨에 대한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을 지우거나 하면 관련 CCTV 하드디스크를 본체에서 빼낸 혐의(증거인멸)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A씨와 D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준형 기자



내 실력 뽐내볼까 19일 오후 서울 한양대학교 올림파체육관에서 열린 2018학년도 미술특기자 수시 실기고사에서 수험생들이 학교가 제시한 주제에 따라 그림을 그리고 있다.

7개 교육시민단체 “광주시,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7개 교육시민단체는 19일 “차별없는 급식은 평생교육 실현의 기본”이라며 윤정현 광주시장에 대해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7개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비협조로 당초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고교 무상급식을 1개 학년씩 단계적으로 실시기로 하고 학품비의 70%만을 시가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조차 거부 당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해말 기준 전국 초, 중, 고교 무상급식 비율은 74.1%에 이르고, 강원도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기로 했으며 인천과 세종, 경기도 광명, 부천, 전남 광양도 고교까지 확대했거나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이제 고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윤 시장은 소신처럼 입에 달고 했던 말”이라며 “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합심하

는데 있어 책임 떠넘기기와 역할분쟁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무상급식 지원은 낭비성, 선심성 예산 지원이 아니고, 20만 광주 학생들이 눈칫밥 먹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먹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는 학생 1인당 연간 40만원에서 60만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 이로 인한 소비 진작과 생산유발, 지역경제 순환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